

일제시대 선교회의 보건간호사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

이 꽃 메* · 김 화 중**

I. 서 론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환경은 새로운 밀레니엄에 직면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 주요 건강문제로 만성퇴행성질환의 대두, 노인인구의 증가, 국민 의료비의 상승, 생활양식의 변화, 건강권에 대한 인식 고양 등의 변화는 보건의료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간호계 내에서도 전통적 사업 내용을 넘어서서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업 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우리 나라 지역사회간호사업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의 발자취를 통하여 현재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의 기틀을 제공한다.

우리 나라 지역사회간호사업의 시작은 1920년대 초 서울과 공주 등에서 이루어진 선교회의 보건간호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닥크와 스투워트의 원저에 19세기 말 이후 한국 간호의 역사를 덧붙여 발행된 조선간호부회 발행의 "간호사"(1933)에서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까지 서양인 선교간호사가 주도하여 수준 높은 보건간호사업을 펼쳤음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그 내용은 이영복의 "간호사"(1968)에서 재기술되어 이후 한국 보건간호사업에 대한 상식으로 알려져 왔다. 그 후 홍신영이

"한국 간호교육행정의 발전적 고찰"(1972)에서 "조선간호부회보"를 통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을 많이 밝힘으로써 일제시대 선교회 보건간호사업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넓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홍신영의 글은 조선간호부회 발행의 "간호사"와 이영복의 "간호사" 내용에 새로운 사실을 덧붙인 이상의 해석이나 이해를 마련해 주지 못했다.

최근 김혜경은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1997)이라는 글에서 일제시대 선교회의 아동보건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해석을 제시하였다. 즉, 일제시대 선교회에서는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아동보건사업을 통하여 근대적 아동기(兒童期)와 근대적 인간형성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혜경의 해석은 왜 일제시대 선교회의 아동보건사업이 활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해안을 넓혀 준다. 그러나 김혜경의 관심은 간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간호사업의 실시와 확대, 의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일제시대 선교회 보건간호사업의 시작과 변천을 간호사업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사업 수준과 의미를 짚어보겠다. 더 나아가 당시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변화에 직면한 한국의 지역

* 서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시간강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사회간호사업이 되짚어야 할 측면을 살펴보겠다.

연구 방법으로는 일제시대에 발행된 일차사료에서 관련 사항을 추려내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후 관련 연구를 참고로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당시 일차사료로는 “조선간호부회보”, “Korea Mission Field” 등에 나타난 사업 보고서가 중심이 되었다. 특히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등한시되었던 “동아일보”, “매일신보” 등의 관계 기사를 통하여 당시 선교회의 보건간호사업이 일반인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살펴보겠다.

II. 본 론

1. 보건간호사업의 시도

한국의 선교회에서 계획적인 보건간호사업을 펼치고자 한 최초의 노력은 1909년 10월 7일 서울의 이화학당에서 열린 재선졸업간호부회 연례회의에서 나타난다.¹⁾ 한국에 서양인 간호사가 처음 입국한 것이 1891년이었으니,²⁾ 그로부터 18년 만이었다. 1909년 당시 선교회 소속 서양인 간호사의 수는 약 20명에 달하였고,³⁾ 이들은 주로 각 선교회 병원에 소속되어 임상간호에 종사하고 있었다.

1908년 창립된 재선졸업간호부회(the graduate nurses' association in Korea)는 1909년 10월 7일 오후 3시 서울 이화학당에서 연례회의를 가졌는데, 주제 발표를 버피(Miss Burpee)가 “한국에 구역간호(district nursing)를 실시할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였다. 버피는 미국북장로교회에서 1903년에 파견한 선교간호부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활동하였으며, 미국 보스턴 근교에서의 보건간호사업에 대한 경험과 의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 구역간호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는) 구역 간호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굳건한 관습 때문에 가정에서는 병원 간호를 받아들이지 않을 환자가 한국에는 많기 때문이며, 그 결과 사망률이 높다. 가정에 있는 한국인은 종종 아주 필요한 간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간호를 위하여 병원에 오고자 할 지라도, 그들 모두를 보살필 공간과 충분한 직원이 있는가?⁴⁾

즉, 한국의 관습 때문에 심하게 아파도 병원에 오지 않을 환자가 많고, 그런 경우에 제대로 간호를 받지 못하며, 병원에 온다 하더라도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구역간호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피는 구역간호사업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제복도 고안하였고, “한국어와 한국어인 가정 생활을 아는 외국인 간호부가(중략) 한국인 간호부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bible woman이 동행하여 선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간호사의 실습도 실시하여 교육적 목적도 거둘 것을 계획하였다. 버피의 계획은 곧 열린 토론을 불러왔는데, 주요 쟁점은 보건간호사업을 유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무료로 할 것인가였다. 무료로 하자는 측에서는 구역 간호의 목적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훈련받은 간호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하였고, 유료로 하자는 측에서는 무료로 간호를 했을 때 한국에서 간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게 형성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날의 논의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⁵⁾ 이듬해 구역간호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버피가 한국을 떠남에 따라 실제 사업으로 옮겨지지도 못했다. 그러나 1909년 보건간호사업이 시작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회 소속 병원을 운영하기에도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⁶⁾

2. 보건간호사업의 시작

- 1) 1895년 콜레라가 한국 전역에서 유행했을 때 선교회 의사와 간호사들이 내부 방역국 소속으로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한 예가 있다. (조선간호부회 편(1933), 간호사, 293)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전염병 유행에 대한 즉각적 대처의 필요에 따라 응급수단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었고, 일회적으로 그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건간호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이꽃메와 황상익의 “우리 나라 근대 병원에서의 간호: 1885-1910”(1997) 참조)
- 2) 영국 성공회에서 파견하여 1891년 10월 한국에 도착한 히트코트(Heathcote)가 최초의 선교회 소속 서양인 간호사였다. (조선간호부회 편, 위의 책, 305; 에비슨(1940), 구한말 비록 하, 영남대출판부, 81.)
- 3) 이 숫자는 1910년 선교회 소속 서양인 간호사가 22명이었다는 연구(황상익·기창덕(1994),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 동안 내한한 서양선교의료인의 활동 분석, 의사학, 57-51)에 따른 것이다.
- 4) Shields, E. Annual Meeting of the Graduate Nurses' Association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09.12.
- 5) Shields. 위의 글.
- 6) 1917년 구역간호를 시작했다가 중단한 선교간호사 로버츠는 “한국에서 사회사업에 있어서는 이루어진 일이 별로 없는데 선교 의사와 간호부가 선교병원에 공급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Roberts, E. S., District Nursing, K.M.F. 1920.10. 204.)

선교회 간호사가 보건간호사업을 시작한 것은 1910년 대였다. 미국 남장로교회에 1912년 파견한 선교간호부 셰핑(E. J. Shepping)은 광주 제중병원에서 4년간 근무한 후 군산 구암예수교병원으로 옮겨 이곳에서 1년간 근무하였다.⁷⁾ 셰핑은 광주와 군산의 선교회에서 간호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사회구제사업(social relief work)”을 하였다. 사업은 크게 네 가지였는데, 첫째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중에 질병의 후유증으로 쇠약하면서 도와줄 사람도, 집이나 직장도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집과 의복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가난한 노인 환자에게 적합한 숙소를 찾아 주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모자보건사업으로 가정방문, 필요한 경우 환자를 데리고 진료소 방문, 가정에서의 보건교육, 가정에서 간호 제공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아기 기르는 방법, 심장에 이상이 있는 아기를 돌보는 방법, 위생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는 구조(救助) 사업이었는데, 예를 들어 주인의 폭행으로 부상당한 소녀를 종의 상태에서 구조한 경우가 있었다.⁸⁾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본인이 나중에 선교잡지에 “구역간호(district nursing)”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하기는 했지만, 선교회에서의 간호에 더하여 셰핑의 개인적 성의와 노력으로 행한 활동이지 본격적인 보건간호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 본격적인 활동은 선교회 간호사 엘리자베스 로버츠(Elizabeth S. Roberts)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로버츠는 1917년 미국 북감리교회로부터 한국에서 구역간호(district nursing)와 사회사업을 하도록 임명을 받았다. 로버츠는 모자보건, 그중에도 영아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11월경 세브란스병원의 방 하나를 영아보건실로 꾸렸는데, 의자, 이유식 만들기 시범을 위한 조리 기구, 목욕시설, 아기 돌보기 교육을 위한 벽걸이 등을 갖추었다. 영아보건실에서는 어머니에게 아기 돌보는 방법을 교육하고 목욕시키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불우한 어린이를 초청하여 약 백명을 목욕시킨 후 깨끗한 옷을 입히고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사업이 시작된 후 9개월 동안 2,446명의 어머니와 아기가 이곳을 방문하

였고, 324회 가정 방문을 했는데, 가정 방문은 대부분 산과 환례였다. 로버츠는 모자보건, 어린이 보건교육, 가정 위생과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로버츠의 보건간호사업은 1년이 채 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로버츠가 1918년 8월부터 시베리아의 두만병원(豆滿病院)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미국 적십자사에서 제1차세계대전의 전황에 휩싸여 있는 시베리아 지역의 구호활동을 위하여 조선에 있는 선교의료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로버츠가 그중 일원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⁹⁾ 6개월 후 한국에 돌아오게 된 로버츠는 보건간호사업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선교회에서의 임상간호와 간호교육에 역할이 할당되어 더 이상 보건간호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로버츠가 시베리아에 가고 난 후 사업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중지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 졸업간호부가 일을 맡아서 가정방문을 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 여성에게는 일주일간의 무료 진찰권을 주었으며, 가난한 여성이 분만을 하였을 때에는 아기의 옷을 마련해 주기도 하는 등¹⁰⁾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0년대에 각지의 선교회에서 본격적인 보건간호사업이 시작되었다. 그중 특히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한 서울 태화여자관의 로젠버거, 공주의 보딩, 인천의 코스트럽은 모두 1921년에서 1922년 사이에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파견한 선교간호사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24년 1월 일제히 보건간호사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1917년 보건간호사업을 시작하도록 로버츠를 파견했던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전국적 규모의 사업 시작을 지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경성의 보건간호사업

1) 태화여자관의 보건간호사업 시작

1921년 미국 북감리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부임한 선교간호부 로젠버거(E. T. Rosenberger)는 간간히 위생 강연회를 통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보건간호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¹¹⁾ 로젠버거는 한신

7) 셰핑은 그후 1917년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다. (백춘성(1980). 천국에서 만납시다.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42.)

8) Shepping, E. J. District Nursing. K.M.F. 1920.10. 205-207.

9) 조선간호부회 편. 위의 글. 296.

10) Roberts, E. S. District Nursing. K.M.F. 1920.10. 204-205.

11) 조선간호부회 편. 위의 책. 290-292.

12) 한신광은 1923년 동대문부인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하고 6월 경기도의 산파시험에 합격하여 산파면허를 획득하였다. (이꽃메 (1999). 일제시대 우리 나라 간호제도에 관한 보건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3)

광¹²⁾과 함께 1924년 1월 7일 아침 경성 인사동의 태화 여자관을 기반으로 가정 방문을 “유아를 양육하는 법이든지 임신 중에 위생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활동을 시작하였다. 진료는 동대문 부인병원의 선교의사 홀(S. Hall)이 담당하였다.¹³⁾¹⁴⁾ 이들의 초기 보건간호활동은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한신광의 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는 각 가정을 방문하며 아동 기르는 법 같은 것을 실지로 보는 대로 가르쳐주며 한 달에 한번씩 건강진찰을 하러 오라고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를 권고하며 2시부터 5시까지는 진찰소에서 의사와 함께 진찰하러 오는 아이들의 병을 보며 약까지 짓노라고 자못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¹⁵⁾

즉, 오전에는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육아법 교육을 중심으로 간호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진찰소 내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건강한 영유아도 한달에 한번은 진찰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기적 성장발달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태화여자관에서는 1924년 1년 동안 462명의 영유아를 등록시켜서 진찰소로 방문하도록 하여 건강상태를 살펴 보고 양육법을 교육하였으며, 일주일에 한번 어머니들이 모이도록 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¹⁶⁾

태화여자관의 간호사업은 그해 5월 3일에 생후 3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무료 건강진단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우량아 경진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총독부의원, 세브란스병원, 동대문부인병원의 의사 5명이 진료를 담당하여 특히 건강한 어린이는 1, 2, 3등으로 선발하여 상품을 주었다.¹⁷⁾ 이때 주최측의 예산을 뛰어

넘어 5백명의 어린이가 몰려드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¹⁸⁾ 방문한 어린이에게는 모두 장난감을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두군데 장난감 가게의 장난감을 몽땅 사들여야 할 정도였다.¹⁹⁾ 이후 태화여자관의 무료 어린이 건강진단은 연중행사로 정례화 되고 태화여자관과 근대적 양육방법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행사가 되었다. 이듬해인 1925년에는 “태화여자관 사회부 진찰소 건강후원회”에서 5월 15일에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자를 제한하여 태화진찰소에 매일 1회씩 다니며 진찰을 받던 영유아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명의 의사와 동대문부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간호사 10명이 “진찰에 종사”하고 행사를 다양화하여 세브란스병원 의사 구영숙이 “예방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위생강연을 실시하고 태화코러스의 합창과 음악 등이 펼쳐졌다.²⁰⁾

1927년에는 행사가 더욱 정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행사를 이틀로 나누어 첫째날에는 진찰소에 다니는 약 150명의 영유아 중에 2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진단”을 했는데 대상자를 월령에 따라 나누고, 심사 기준을 항목별로 나누어 배점을 줌으로써 구체화하였다. 즉, “아이들은 세등급으로 나누어 3개월로 18개월까지 한등 19개월로 32개월까지 한등 33개월로 60개월까지 한등으로” 하였으며, 각각 “무게·키·가슴·머리크기 20, 머리 20, 머리털 10, 정수리(정한지 부정한지) 10, 숨구멍 10, 얼굴·눈·코·입 40, 귀 10, 목·편도선·임파선 20, 가슴·폐·심장 70, 척추 20, 배·대소변 60, 팔·손·손가락 20, 다리·발 20, 앉은 자세 20, 음부 40, 피부 30, 영양 30, 신경·근육 30, 성품 10, 다른 흠결(欠缺) 10”으로 하여 20항목에 걸쳐 5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였다. “진단은 매우 상세하여 심지어 침 흘리는 것 목욕 자주 시키는 것까지” 보았다. 둘째날에는 백여명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동반하고 출석한 자리에서 “구영숙 의사의 진찰소 사업 소개와 오궁선 의사의 위생강연 등이 있고” 난 후 시상식이 있었다. 이때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중

13) 로센버거, 경성 안에 공중위생. 조선간호부회보 제1호. 1925. 11-12.

14) 그동안 태화여자관의 간호사업은 1923년 1월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간호사, 290) 일차사료의 확인에 의하면 1924년 1월 7일 시작되었다. (로센버거, 위의 글: 조선간호부회보 No.9. 1828. 여름. 28-29.)

15) 동아일보 1925.2.18. 간호부의 생활, 태화진찰소 한신광양

16) 로센버거, 경성 안에 공중위생. 조선간호부회보 제1호. 1925. 11-12.

17) 동아일보 1924.5.1. 유아건강을 진단, 3일 오후 태화여자관으로, 어린이 가진 어머니는 오라.

18) 동아일보 1924.5.5. 500명 소아가 답지한 태화진찰소의 소아건강진단 대성황

19) 한국 북에서 남으로 공중보건비행여행. K.M.F. 1940.5. 81-83.

20) 동아일보 1925.5.15. 아동건강진단 금 15일에 태화여자관에서; 동아일보 1925.5.16. 아동건강진찰

21) 동아일보 1927.6.3. 태화진찰소 4일 건강회 개최; 동아일보 1927.6.4. 태화여자진찰소 건강아동진단 일일삼등까지 상을 주어 만점은 5백점; 동아일보 1927.6.6. 건강으로 상탄 어린이, 형제가 다 일등이 되어

에서 일등을 한 이종현이라는 생후 9개월의 여자아이는 500점 만점에 496점을 맞은 놀라운 성적(?)을 과시하였다.²¹⁾ 이후 태화여자관의 아동건강진단은 연례화되고 한층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행사가 되었다.²²⁾

영유아 건강진단 외에도 태화여자관의 보건간호사업은 확충되었다. 1927년 로센버거와 최유겸이 주도하는 사업은 진료소에 방문하는 영유아의 진찰과 보건교육 실시, 학생의 건강진단, 자모회 개최,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방문, 무료 목욕 등으로 이루어졌다.²³⁾ 진찰소에 다니는 어린이는 약 150명으로 멀리 용산, 공덕리, 왕십리에서도 왔으며²⁴⁾ 매달 첫 수요일마다 자모회를 열어 육아법을 교육하였고, 매주 수요일에는 편물 무료 강습을 하였다.²⁵⁾ 진찰소에 다니는 영유아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었고, 어머니 되는 이들은 “유식계급에 속해” 있었고 “중학 정도 이상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다.²⁶⁾ 그해 1년 동안의 구체적인 활동을 열거하면, 하루 평균 15명 꼴인 5천5백명의 영유아가 태화관 진찰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5개 보통학교 8백명 학생에게 신체검사를 하여 그중 병이 있는 학생을 치료하였으며, 1백회의 보건교육을 하였고, 8백명 학생 모두에게 십이지장충과 회충약을 실비로 공급하였다. 또한 36회 자모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의 의복 입히는 법과 젖먹이는 법을 가르치며 영아의 위생과 임신중에 할 위생을 설명”하였으며, 진찰소 안에 무료 목욕실을 설치하여 1주일에 2회 빈민 어린이를 목욕시켰는데, 그 숫자가 1년간 8백명에 달하였다. 그 외에 앞에서 말한 건강후원회 주최의 아동건강대회도 사업에 포함되었다.²⁷⁾

1928년 말에는 두유(豆乳) 공급을 시작하였다.²⁸⁾ 로센버거는 두유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열거하였다.

1. 두유는 우유보다 다섯 배쯤 싸다.

2. 보정한 두유는 영아에게도 우유의 대용품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3. 주로 쌀로 이루어진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부족한 단백질과 무기질을 공급함으로써 요구를 충족한다.
4. 영양불량인 아기에게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²⁹⁾

즉, 우유가 값비싸고 구하기 힘든 한국에서 값싸고 영양적으로 훌륭한 대용품으로 두유가 제공된 것이다. 태화여자관에서는 매일 아침 두유를 만들어서 16명의 영유아에게 공급하였으며, 지방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분말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고 있었다.³⁰⁾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공중위생학 학사학위를 받은 간호부 이금전(Francis Lee)은 태화여자관에서 선교간호부 로센버거와 함께 보건간호 사업을 펼쳤는데, 학생들에게 위생담과 위생극을 하고, 어머니들이 읽을 수 있는 위생관련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는데, 그중 “영양과 건강”, “자모회공과” 등이 널리 읽혔다.³¹⁾

태화여자관의 보건간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26년 5월에는 전(全)조선기독병원 연합간호부회에서 태화여자관에서 첫 공중위생 강습회를 개최하였다.³²⁾ 당시 조선간호부회 회장이었던 세평은 보건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한국에서의 간호사업을 “가사간호사업”, “병원적 간호”, “방문간호와 공중위생간호사업”의 세 가지로 나누고 그중 독간호(private nursing)에 해당하는 “가사간호사업”은 “은 조선사람의 경제상태 뿐 아니라 조선사람의 집과 생활상태에 인연”하여 “크게 발달하게 허락할 수가” 없으며, “이제까지 모든 간호교육은 병원에 특별한 요구가 되므로 병원적 간호로 계획하였으나 이보다 더 크게 필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방문간호와 공중위생간호”라고 주장하였다. 보건간호사업의 갈래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아 보건교육, 영유아보건, 학교보건으로

22) 동아일보 1928.5.29. 태화여자진찰소 아동건강진찰,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동아일보 1928.5.31. 태화여자진찰소 건강아동진단 1, 2, 3등까지 상을 준다. 동아일보 1929.5.23. 태화여자관에서 영아건강진단; 동아일보 1929.5.27. 태화여관 영아진단과 건강상 탄 아이들: 그들을 길러 주는 법은 어떠한가;
 23) 동아일보 1927.5.22-24. 건강한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났다 가정의 규율과 정결한 습관; 로선복. 태화진찰소 공중위생보고. 조선간호부회보 No.9. 1928. 여름. 26-27.
 24) 동아일보 1927.6.4. 태화여자진찰소 건강아동진단
 25) 동아일보 1927.6.6. 건강진단으로 상탄 어린이, 형제가 다 일등이 되어
 26) 동아일보 1927.5.22. 건강한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났다.
 27) 최유겸. 영아부 사업경과 보고서. 조선간호부회보 No.9. 1928. 여름. 28-29.
 28) 동아일보 1928.12.15. 빈한한 집의 아이에게 콩젖 공급. 태화여자관 건강진단소에서
 29) Rosenberger, E. T. 콩우유와 먹이는 방법. K.M.F. 1931.6. 133-134.
 30) Rosenberger, E. T. 위의 글.
 31) 이덕주(1993).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86-187.
 32) 홍신영(1972). 한국 간호교육행정의 발전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3.

나누었는데, 그중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나병과 폐결핵의 예방법 교육과 아편 반대를 강조하였다.³³⁾

2) 경성연합아동건강회

태화여자관의 보건간호사업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1929년 경성의 세브란스병원, 동대문부인병원, 태화여자관 등 3개 선교회 기관이 합동으로 경성연합아동건강회를 조직하였다.³⁴⁾ 경성연합아동건강회의 목적은 “어린이에게 안전한 한국”이었다. 경성연합아동건강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도시 전체에 위생적인 폐쇄식 하수도(closed sewers).
2. 모든 학교와 교회에 산전 클리닉과 건아 클리닉, 미취학 아동 클리닉(preschool clinics), 결핵 클리닉, 치과클리닉 설치
3. 파리와 모기에 대항하는 보건 캠페인으로 모든 공공장소와 버스, 전차(street cars)에 포스터.
4. 예방접종 교육, 전염성 질환 조절(control),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 분만 서비스 등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1. 시 전체에 새로운 클리닉을 연다.
2. 동대문, 태화여자관, 세브란스의 3개 중심 건아 클리닉이 주변 지역을 망라한다.
3. 이 클리닉들은 의학생과 간호학생의 교육 센터가 된다.
4. 이 클리닉들은 진정한 건아 클리닉이 된다. 어떤 질병도 의사나 병원에 후송된다. 예방법을 취하고,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영양 불량을 막고, 가정 방문을 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경성아동건강회는 동대문부인병원, 태화여자관, 세브란스 병원이 각각 인근 지역을 담당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서울시 전체에 하부 조직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곳에서는 예방 접종을 포함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영양 개선 사업, 가정 방문, 질병이 있는 영유아의 병원 후송, 의학생과 간호학생 교육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자 하였다. 1929년 현재 경성아동건강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1. 건아 클리닉, 2. 산전 사업, 3. 가정 방문, 4. 학교에서의 건강진단, 5. 학교에서의 건강강연, 6. 어머니 모임, 7. 목욕소, 8. 두유 보급을 포함하는 우유 보급소, 9. 1년에 한번 간호부들의 보건 회의(health conference), 10. 1년에 한번 유아 주간” 등 10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³⁵⁾ 이후 1930년부터 3년간 경성아동건강회의 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경성연합아동건강회(The Seoul Child Welfare Union)의 아동보건 및 공중위생 사업의 실태³⁶⁾

사업	내용	1930년	1931년	1932년
진찰소	진료일수	129일		210일
	방문자(어린이)	1,682명	2,533명	3,883명
	입원 치료	150명		211명
	보건 상담	3,442명		4,913명
	산파 출장			11회
	출산 강좌			147회
	출산 후 진료			124회
가정방문	가정방문	2,651회	3,655회	4,135회
	유아식 강좌	915회		1,917회
	가정목욕 시범			752회
	가정 치료			362명
학교보건	방문 학교		75개	294개
	강연회	118회		445회
	수강 학생	7,823명		
	건강 진단			1,415회
	건강 상담			2,194회
	치료 학생		1,149명	111명
목욕	무료목욕	1,258명	1,691명	1,782명
우유급식	무료급식우유:공우유	17,422명	15,768명	26,354명
자모회		25회	34회	51회
예방접종			2백	282명
개종자				29명

이중 두유 제조에 필요한 콩가루는 평양 숭실대학 농업부에서 제공하였다. 세브란스병원의 선교의사 예비슨은 무료 쉬크 테스트로 디프테리아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2백명의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였고, 동대문 부인병원의 선교의사 블록(Block)은 여러 소학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³⁷⁾ 3개 진찰소에는 각각 60여명의 영유

33) 서서평. 조선간호부 사업상태. 조선간호부회보 14호. 1929. 가을. 1-5.

34) 조선간호부회보 13호. 1929 하기호. 21-24.

35) Rosenberger, E. T. New Seoul Child-Welfare Union. R.N. K.M.F. 1930.5. 109-110.

36) E. T. Rosenberger, "The Seoul Child Welfare Union Social Evangelistic Center". The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32. 52-53.; 기독교신보 1930.7.2.(이덕주. 위의 책 189-190에서 재인용); 조선간호부회보 24호 1932. 52-57.(홍신영. 위의 글 34에서 재인용)

아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1개월에 1회씩 가서 사업하였고, 매월 1회씩 자모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유보급을 시작하여 매일 12명분인 48병의 우유를 준비하여 공급하였는데, 이 일은 간호부 최우경 담당이었다.³⁷⁾

1924년 시작된 '아동주간' 행사는 여전히 계속되었는데, 한국인 간호부들은 어머니들에게 우유 먹이는 법, 목욕시키는 법, 옷입히는 법 등의 근대적 육아시범을 보이고 육아법을 전수하여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³⁸⁾

1932년에는 사업 부문이 더욱 확대되어 전염병예방, 외래산부인과, 치과 등이 추가되었다.⁴⁰⁾ 1933년부터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만 3세까지를 담당하는 아동건강부와 만 3세 이상을 담당하는 일반보건부로 부서를 나누었다. 1933년에 아동부에 300명, 일반부에 608명이 등록하였으며, 로센버거와 이금전, 김정선, 천장현 등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었다.⁴¹⁾ 영유아 보건사업은 처음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수유시의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체중 변화를 측정하여 체중이 떨어지면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지도를 하고 이유에 관한 표를 붙여놓아 따라하도록 하였다.⁴²⁾

1936년에 공중보건부서의 중심이 태화여자관에서 동대문부인병원으로 옮겨졌고,⁴³⁾ 사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동대문부인병원 구내에 경성탁아소를 설치하여 병든 어머니의 아이들과 어머니 없는 영유아를 수용하여 인공영양으로 양육하였다.⁴⁴⁾ 1939년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영아 진찰실과 유치원을 두고 간호사 2명과 전도부인 2명이 전담 인력으로 활동하였다.⁴⁵⁾

4. 공주의 보건간호사업

1) 공주 보건간호사업의 시작

공주에서의 보건간호사업은 서울의 태화여자관과 비슷

한 시기인 1924년 1월의 어느 월요일에 시작되었다. 1922년 말 미국북감리교회에서 한국에 파견한 산파이자 간호부인 보딩(Maren P. Bording, 한국이름 정말인)은 영유아의 부모가 선교계 진찰소에 와서 도움을 받도록 광고했는데, 어느날 8명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옴으로써 보건간호활동이 시작되었다. 당시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가로 세로 각각 4척, 8척인 작은 방에서 대기, 신체검진, 기록 등을 모두 하였다. 매주 월요일을 영유아 신체검진일로 정했는데, 매주 오는 영유아가 평균 25명이었다. 장소가 협소하여 보건교육이나 우유보급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⁴⁶⁾

보딩은 1925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5,532회의 치료를 했는데 대부분은 대상자가 영유아와 여성이었다. 1925년 1월부터는 공주여자학교 학생에 대한 간호를 시작하여 1천1백회의 일차보건요를 수행하였다. 또한 활동 범위를 공주부 이외의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1925년에는 파운드 의사와 순회진료를 시작하여 1926년 8월부터는 장이 열리는 곳을 찾아갔고,⁴⁷⁾ 지방 2곳에 영유아보건사업을 조직하였다. 또한 1926년경 조선인 간호사가 합세했는데, 그중에 한명은 산파 교육을 받은 김태경이었다. 1926년에는 공주부에만 등록 영유아가 80명인데, 그중 5명은 사망하였고, 계속 추구관리하는 인원은 61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한달에 두 번 진료소를 방문하고, 한달에 한번은 간호부가 가정을 방문하였다. 1926년 5월에는 "영아경쟁진단회"를 개최했는데, 이들을 20명이 "신체조직이 완전"하다고 판명되었다.⁴⁸⁾

1926년 6월에는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어 이곳에서 우유보급을 시작하였다. 공주의 우유보급은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⁴⁹⁾,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우유값을 내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우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딩은 미국의 친구들로부터 우유값의 2/3를 도움받고, 1/3

37) 경성 연합아동보건회 사업실적(1931.5.-1932.5.) 조선간호부회보 24호 1932. 52-57.(홍신영, 위의 글 34에서 재인용.)

38) 태화여자관 공중위생사업 보고, 조선간호부회보 13호 1929 하기호, 21-24.

39) 조선간호부회보 24호 1932. 52-57.(홍신영, 1973. 34에서 재인용); 동아일보 1931.1.31.-2.21. 아동보건연합회에서 우람아 되기까지; 동아일보 1931.5.31. 어머니에 참고될 육아 실지 강습회; 동아일보 1939.5.7. 경성아동연합회보 우람아 표창

40) 조선간호부회보 편, 위의 책, 290-292

41) 홍신영, 위의 글, 35.

42) 동아일보 1936.5.9. 건전하게 기르자면 간식을 절대 금할 일, 합리적이면 됩니다, 간호원장 로센버거 담

43) 한국 북에서 남으로 공중보건비행여행, K.M.F. 1940.5. 81-83.

44) 홍신영, 위의 글, 35.

45) 홍신영, 위의 글, 35.

46) 조선간호부회보, No.9, 1928, 여름

47) Esteb, K. M. 시장 진료소 사업, K.M.F. 1927.1.

48) Bording, M. P. 공주교회의 의료사업, 조선간호부회보 No.2, 1926.9.

49) 조선간호부회보 편, 위의 책, 292.

은 부모의 본인부담으로 하여 1927년에는 108명의 영유아에게 우유를 공급할 수 있었다. 1928년에는 매일 46명의 영유아에게 우유를 공급하였고, 138명의 영유아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주 평균 40명의 영유아가 사업소에 와서 진찰을 받았다. 방문간호는 우유를 공급하는 영유아에게는 1주 1회, 기타 영유아는 1달동안 사업소에 오지 않는 경우 방문하였다. 일반인에게는 가정 위생과 양육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고, 간호사들에게 보건사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27년에는 새로 임신부에 대한 보건간호사업을 시작하여, 산전관리, 해산시의 조산, 산후관리까지 연계하여 시행하였다. 1927년에는 한국인 산파간호사가 43명의 해산을 담당하였고, 분만 후 열흘간은 매일 한차례 방문하였다.⁵⁰⁾

특히 1927년 4월 보딩이 의사 면허를 받아 질병 치료에 주력하면서 한국인 간호부들이 더욱 활발한 보건간호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1928년 한국인 산파 김태경이 보고한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간호부장으로 계신 미스 보잉께서 작년 4월에 의사의 면허를 받아가지고 영아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며 외촌(外村)으로 출장하여 빈민의 병을 무료로 치료하고 특별히 영아들의 양육법을 가르치며 간호부 한분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만들어 인공영양을 하고... 월요일은 오전 9시로 하오 6시까지 조선아동의 체중을 달아보고 화요일은 일본인의 유아를 회집하여 일본인 영아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간호부는 매월 1차씩 영아의 집을 심방하고 형편에 의하여 유아의 병이 낫을 때는 매일 방문도 하게 됩니다. 목요일마다 태모(胎母)를 진찰하고 조산한 자에게는 10일간 유아의 목욕과 산모를 간호합니다. 공주영명여학교 내에 학생치료소가 있어서 매일 9시로 동 30분간 치료해 줍니다.⁵¹⁾

1927년 5월에는 공주 공제의원 중앙 영아부에서 일주 일간 보건간호 연구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는 의사 5명, 서양인 간호부 4명, 한국인 간호부 12명이었

다. 당시 이루어진 강의의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강 사	내 용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쉴즈(Shields)	가정간호법
공주 간호부 보딩(Bording)	영아 양육과 우유 만드는 법
인천의 키스톤	건강아와 환자의 식품
평양의 의사 커틀러(Cuttler)	자모에 대한 권고
동대문의 안수경	한국인 간호원과 조산원
공주의 양재순	내장충
공주의 김창현	폐결핵
세브란스의 김창세	공중위생과 공중위생 선전방법

그 외에 영화상영, 공주 공제의원과 잠업강습소 견학이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⁵²⁾

1930년에는 두가지 중요한 사업이 추가되었다. 하나는 한국 최초로 놀이방(day nursery school)을 시작한 것으로 출생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 하나는 간호사가 보건간호를 교육받을 수 있는 과정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1년에 평균 4명의 간호사가 공주에서 보건간호를 배우고 돌아갔는데, 그중 한명은 일본인으로 6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2) 대전으로 사업 확대

1932년에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짐에 따라 많은 영유아보전사업 대상자가 대전으로 이주하였다. 처음 얼마간은 버스(public auto)로 매일 공주에서 대전까지 우유를 배달했지, 영유아의 부모와 관청에서 요구하고 협조하여 대전에 영유아 클리닉과 우유 보급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한국인 간호부가 대전의 사업을 담당하고, 공주에서 대전의 사업을 감독하였다. 1934년의 영아보전사업은 “영아 클리닉 128, 검사 2,264, 우유 보급소의 조제 244, 우유병 68,092, 가정 분만 43, 유아원(day nursery school) 어린이 37, 유아원 일수(day nursery days) 3,539, 보건간호과정(post graduate course) 이수 5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⁵³⁾

1938년에는 대전 지역 주민이 수십원을 모금하여 보전사업을 위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교회 부지에

50) 조선간호부회보, No.9, 1928. 여름: Bording, M. P. Infant welfare and public health work in Kongju. K.M.F. 1928.3.

51) 김태경. 공중위생보고를 받은 것. 조선간호부회보.

52) 조선간호부회보 5호 1927. 3-5.(홍신영. 위의 글 33에서 재인용)

53) Bording, M. P. Infant Welfare Work. K.M.F. 1935.5. 100-102.

건축을 시작했는데, 시 관리의 관심과 협조를 받아 시 건축가가 개인적으로 건축을 감독하였다. 당시 공주와 대전의 영아보전사업은 크게 네갈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는 임신부의 산전관리, 분만시 조산, 산후관리였다. 일년간 15명을 조산하였으므로 43명을 조산한 1927년 보다 이 부분의 사업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우유 보급으로 일년간 약 3백명의 아기에게 약 7천병의 우유를 공급하였다. 어느 정도 자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우유 보급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전에는 보당의 미국 친구들이 재정적 도움을 주었으나 이제는 공주의 어머니회에서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 셋째 놀이방은 비용 상승으로 포기하고, 비용을 약 두배로 받는 보육시설(day and night nursery)로 바꾸었다. 대상자는 어머니가 없고 영양불량인 영유아였으며, 어머니는 없지만 아버지가 능력 있는 영유아들로서 거의 만원이었다. 넷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교육과정(baby nurses' training)은 이제 2년 과정으로 연장되었다.⁵⁴⁾

5. 기타 지역의 보건간호사업

서울과 공주 이외에 지방에서도 1920년대 중반부터 보건간호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개성에서는 1923년 남성병원과 고려여자회관 합동으로 매 월요일 고려여자회관에서 영유아 대상의 진단사업을 시작하였고,⁵⁵⁾ 이후 농촌보건사업을 주로 하였다.⁵⁶⁾

미국 북칼리교에서 1922년 파견한 간호부 코스트럽(Alfrida Bertha Kostrup)은 1924년 6월 인천에서 보건간호사업을 시작하였다. 1931년에는 신축 건물에서 영아진찰소, 자모회, 구락부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⁵⁷⁾ 인천 부인의원과 더불어 외국전도부인회(W. F. M. S.)로부터 영아보전사업을 위하여 16만2천5백달러를 원조받았다.⁵⁸⁾

1912년 호주 장로교회에서 파견한 간호부 나피어

(Gertrude Napier)는 1924년 마산, 1925년 진주 배둔 병원에 영아부와 위생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병원 내에 부속 보건회를 설치하여 보건간호사업을 시행하였다.⁵⁹⁾

대구에서는 미국북장로교회의 선교간호부 헤드버그(Clara Hedberg)가 영아보전사업을 시작되었다. 초진시에 전반적 신체사정을 하였고 이후 내방할 때마다 체중을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를 하였다. 어린이 상태에 따라 어머니에게 개별 보건교육을 하고, 이유식에 대한 시범교육을 집단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⁶⁰⁾ 1931년에는 등록 영유아가 112명이고, 일년간 내원하여 진료한 영유아는 2,025명이었는데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체중 미달인 경우에는 무료로 간유를 주었다. 1932년에는 매주 40명에게 가정간호를 시행하였다. 이후 1930년대에는 매년 5백여명의 등록된 영유아를 주 2회 의사와 담당 간호부인 박정순이 진료하였고, 육아법, 음식 공급법, 두유 만드는 법 등을 교육하였다.⁶¹⁾

1919년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파견한 간호부 화이트로(D. Jessie Whitelaw)는 1927년 회령 진찰소에서 자신이 경제적인 부담을 떠맡고 농촌 영아보전과 공중위생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 간호부 2명, 서기 겸 약제사 1명, 의사 1명, 사역자 1명이 활동하여 회령 외 13개 농촌지역에 영아부를 조직하였다. 점차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 1932년에는 김근실, 신인순 등 5명의 간호사가 회령의 보건간호사업에 종사하였다.⁶²⁾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1926년 파견한 이 제이 샐릭스(Ella J. Sharrocks)는 1928년 3월 29일 안동 영아사업소 영아부를 개소하였다. 1년간 약 364명의 영유아 간호를 담당했는데, 영유아가 내소할 때마다 체중을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안동 성소병원의사가 진찰을 하였으며, 치료비와 약값은 무료였다. 인력이 부족하여 가정간호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⁶³⁾

이외에 평양에는 영아보전연합회가 결성되어 위생강연을 통하여 보건의 중요성을 선전하였고, 원산에서는 농촌 중심의 보건사업을 펼쳤다. 통영, 원산, 광주, 강계

54) Bording, M. P. 공주와 대전의 영아 보전. K.M.F. 1939.3. 52-53.

55) 동아일보 1923.11.9. 개성 남성병원과 고려 여자관의 합동경영으로 영아진단 개시, 매 월요일마다 여자회관에서

56) 조선간호부회 편. 위의 책. 292.

57) 조선간호부회 편. 위의 책. 292.

58) 홍신영. 위의 글. 35.

59) 홍신영. 위의 글. 36.

60) 조선간호부회 편. 위의 글. 292.

61) 홍신영. 위의 글. 36.

62) 홍신영. 위의 글. 36.

63) 홍신영. 위의 글. 36.; 사온라스(Ella J.Sharrocks) 안동영아부 보고. 조선간호부회보 13호. 1929. 하기호. 25-26.

등에도 보건사업이 실시되어 1932년에는 선교회 경영의 보건사업기관이 약 13개에 달하게 되었다.64)

6. 선교회 보건간호사업의 위축

1930년대 말, 일본과 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조선총독부에서는 서양인 선교사들을 귀국하도록 강제적 조치를 펼쳤다. 많은 선교사들이 귀국하면서 한국의 선교사업이 위축되어 1940년에는 평양, 해주, 서울, 제물포, 원주, 공주, 대전 등 7개 지역에서 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65) 1941년에도 서울에서는 우유보급, 클리닉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김정순 간호사가 1935년 이래 일하고 있었다.66) 그러나 일제 말기에 접어들어 전시동원체제로 사회 분위기와 여건이 재편되면서 선교회의 사업은 한층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고, 선교회의 보건간호사업은 일제 말의 극도로 위축된 분위기 하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67)

III. 결 론

1910년대에 시작된 선교회의 보건간호사업은 1920년대에 활성화 될 수 있었는데, 특히 미국 북감리교에서 보건간호사업 실시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파견된 서양인 선교간호사들이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중에서도 경성 태화여자관의 로젠버거, 공주의 보딩은 선교계 간호학교 졸업생인 한국인 간호사들을 동반자로 하여 수준 높은 보건간호활동을 펼쳤다. 이들의 보건간호사업은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모성의 경우 산전관리에서 분만시의 조산, 산후관리를 포괄하였고, 영유아는 성장발달 지도와 양육법 지도를 중심으로 하였다. 특히 영유아 보건간호사업이 두드러져서 가정방문과 의료기관의 사업이 연결되었고, 질병예방, 영양지도, 어머니 교실 운영 지도 등을 포괄하였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학교보건과 탁아소 운영, 고아원 운영까지도 포괄하였고, 간호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보건간호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graduate course)까지 실

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교회의 수준 높은 보건간호사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 대상에 있어서 중산층 이상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개신교 가족이 중심이 되었고,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 없이 사업의 거점이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등의 한계점도 노출하였다. 제도화되지 못한 선교회의 보건간호사업은 일제말 전시총동원체제와 기독교에 대한 탄압 속에서 극도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시대 선교회 보건간호사업은 제도적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써 수준 높은 사업을 펼칠 수 있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 규모와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수준 높은 보건간호사업의 경험이 있음을 통하여 오늘날 지역사회간호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각오와 함께 민간과 공공의 장단점을 살려나가야 함을 되새기게 한다.

IV. 참 고 문 헌

1. 일차사료

다크, 라빈니아·스투워드, 이사벨, 조정환(역) (1933). 간호사(看護史). 조선간호부회.
에비슨, 에비슨 기념사업회 역 (1940(1984)). 구한말 비록(舊韓末秘錄). 영남대출판부.
동아일보 (1920.4.-1940.8.)
조선간호부회 (1925-1934). 조선간호부회보.
The Korea Mission Field (1905.11-1941.11.)

2. 이차사료

김혜경 (1997).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백춘성 (1980). 친국에서 만납시다-간호원 선교사 서서평 일대기.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64) 조선간호부회 편. 위의 책. 290-293.:

65) 한국 북에서 남으로 중증보건비행여행. K.M.F. 1940.5. 81-83.

66) 철수 후의 서울 evangelistic and social center. K.M.F. 1941.3.

67) 1941년 이후 해방까지 선교회의 보건간호사업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선교회 보건간호사업에 관한 사실을 많이 담고 있던 조선간호부회보는 1934년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민족주의 계열 일간지도 1940년 정간되었고 선교회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던 Korea Mission Field 역시 1941년 발간이 중단되었다. 다만 1942년 발행된 기독교신문에서 선교회 보건간호사업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선교회의 사업이 극도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건간호사업이 중단되거나 극도로 축소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 이꽃매 (1999). 일제시대 우리 나라 간호제도에 관한 보건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꽃매, 황상익 (1997). 우리 나라 근대 병원에서의 간호: 1885-1910. 의사학 제6권 제1호.
- 이영복 (1995). 개정증보 간호사. 수문사.
- 홍신영 (1972). 한국 간호교육행정의 발전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상익, 기창덕 (1994). 조선말과 일제 강점기 동안 내한한 서양선교의료인의 활동 분석. 의사학 제3권 제1호.

- Abstract -

Key concept : Public Health Nursing, Mission, Japanese Colonial Period, Maternal and Child Nursing

Missionary Public Health Nursing of Kore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Yi, Ggodme* · Kim, Hwajoung**

Western missionary nurses practiced in Korea from 1891, and the first trial to begin missionary public health nursing service in 1909 could not put into practice for short of nursing staff and budget. The main focus of missionary medical practice was not in public health program but in the management of missionary hospitals. A few of missionary western R.N. tried district nursing in 1910s, but their activities were personal and focused on the rescue of poor and sick patients. In 1917 the North American Methodist Church dispatched R.N. Elizabeth S. Roberts to begin district nursing in Korea. Roberts began maternal and child district nursing service. Her service was

focused on teaching the method of bringing up children, bathing service, and home visiting for delivery. She could not but stop district-nursing service in 1918 to serve for a hospital in Siberia.

The North American Methodist Church dispatched a few of R.N. to Korea in early 1920s and the missionary public health nursing of Korea could be activated. R.N. E. T. Rosenberger began public health nursing program in Seoul with Korean graduate nurse, Shin-gwang Han, and missionary M.D. Hall. Their public health nursing program was focused on maternal and childcare. They did home visiting in the morning, and served at a well baby clinic in the afternoon. The first baby competition began in 1925, and contributed to the teaching the method of bringing up children. They expanded public health nursing activity to school health nursing and milk station. Their public health nursing program was such a success that In 1929 Severance hospital, Eastgate Hospital, Taehwa Social Evangelistic center organized Seoul Child Health Union.

Maren P. Bording, another missionary R.N. and midwife dispatched by the North American Methodist Church began public health nursing program at Kongjoo in 1924. Her program was focused on the maternal and childcare and close to that of Seoul. She started the first milk station in Korea in 1926. As she was a midwife and could get M. D. license in Korea, her program was more focused on maternal care than that of Seoul. The first day nursery school in Korea and the first graduate course for public health nursing in Korea began at Kongjoo in 1930. As the city of Choongcheongnam Province moved from Kongjoo to Daejeon in 1932,

* Junior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ooncheonhyang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missionary public health nursing service in Kongjoo extended to Daejeon.

There were lots of public health nursing program in Korea in 1920s and 1930s by missionary western nurses and Korean nurses. There were 13 missionary public health-nursing

center in Korea in 1932. But in the late 1930s, Japan extended colonial war and drove out western missionaries. The missionary service in Korea was daunted, and the missionary public health nursing service could not but shrink.